

# 남원시, 특산물 음식 개발해 식도락 여행 1번지 꿈꾼다

### '생태관광 에코푸드 전략 보고회' 체험 프로그램 발표·시식 등 진행 지리산 산나물 김밥·흑돼지 수육 덮밥 등 '춘향제' 야시장서 출시

남원시가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만드는 생태관광 대표음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과 지난 7일 시 관계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생태관광 에코푸드 전략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에코푸드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브랜드화 전략 보고, 제품 전시 및 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발 제품은 남원 지리산의 산나물을 이용한 산나물 소시지와 이를 활용한 김밥, 지리산 흑돼지를 활용한 한방수육 덮밥 등이다

제품은 다가오는 '제93회 춘향제'의 야시장을 통해 첫 출시 예정이며 추후 운봉 백두대간생태교

육장 중심으로 판매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조성'과 추진 중인 '백두대간 생태관광 광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한 생태관광 사업의 일환이다.

지속가능한 방문객 창출과 재방문을 향상을 위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리산 둘레길 등 지리산권 관광 방문객을 위한 대표음식 개발에 목적이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에코푸드의 개발이 남원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지 활성화와 주요 타겟층인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의 확대에 이어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최경식(가운데) 남원시장이 '남원시 생태관광 에코푸드 전략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생태관광 대표음식으로 소개된 음식을 살펴보고 있다. <남원시 제공>

## 남원 광한루원 입장료 2천원 지역화폐로 환급

남원시 광한루원의 입장료를 1000원 인상키로 했다. 대신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지역화폐 환원금 역시 인상되는 입장료만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한루원의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자 입장료 체계와 '지역화폐 드림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지역화폐 환원금 역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난다.

인상된 입장료만큼 환원되는 남원사랑상품권의 금액도 상향해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광한루원 입장료 중 1000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지역화폐 드림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22만1330명이 광한루원 입장료 중 1000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았고 관내 가맹점 3928개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벼 병해충 방제 22억원 투입

### 농가 약제구입비 최대 80% 지원

정읍시가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방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올해 22억을 투입 관내 6623 농가 1만 2183ha 벼 재배면적을 방제대상으로 약제구입비의 50~8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벼 흰잎마름병, 잎도열병, 애벌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농가를 포함한 전체 벼 재배면적에 벼 육묘상 처리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월 농업인단체와 농협, 공무원으로 구성된 '병해충방제협의회'를 열고 10개 품목의 지원약제를 선정한 바 있다.

방제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등록)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육묘상 처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육묘상 처리제는 벼 시 파종 시 같이 처리하거나 이앙 3일 전에 육묘상에 분의처리하면 이앙 후에도 약효가 오랜 시간 지속돼 생육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낮출 수 있다.

농약의 처리 방법이 간편하고 방제 비용이 저렴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홍보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집중



고창군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신규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고창군 예산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3일간 노형수 부군수 주재로 '2024년-2025년 국가예산 발굴 실무회의(사진)'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군이 현재까지 발굴한 사업은 2024년도 사업 83건, 2025년도 사업 49건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132건이다.

회의는 농·수·축·산 분야, 지역·경제·사회기반시설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로 묶어 진행됐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의 논

리개발에 집중했다.

군은 부서 간 장벽을 깨고자 소관 부서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모집한 33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 조언을 받은 37건의 아이디어 등 총 70여건의 아이디어를 정부예산 신규사업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예산 1조원 시대의 활력 넘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발굴한 사업인 만큼 정부예산 사업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 명승지 한번에~ 시티투어버스 갑니다

고창군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명소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고창시티투어'를 운영한다.

고창군은 주요 관광지와 세계유산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상품으로 고창시티투어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1일 2대의 순환버스를 통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 순환버스의 노선은 석정온천 관광지-고창터미널-운곡삼사르스지-선운산도립공원-상하농원(4월 공휴일 학원농장 청보리밭)-고인돌 박물관·고창터미널-고창읍성까지의 코스다.

투어 희망자는 출발 전까지 현장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1인당 2000원이며 만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다. 단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비, 중식비 등은 개별부담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티투어 순환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창의 다채로운 행사, 축제와 관광지를 홍보해 더 많은 여행객이 고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 투명 행정 실현 시민 참여 확대

### '청렴 시민감사관' 첫 운영회의

정읍시가 지난 7일 '제2기 청렴 시민감사관' 8명을 위촉하고 첫 운영회의를 진행했다.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는 민선 8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 시민감사관은 행정·회계·건설·건축·법률·언론 등 전문적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시민 전문가로 구성됐다.

청렴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 공직자 부조리와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 불친절 행위 등

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종합감사 등 자체 감사에 참여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주민의 불편·부당한 사항과 현안문제 등에 대한 제보 활동을 하게 되며,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투명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청렴 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취약 분야 청렴 문자 알리미, 청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 시민 제감행 공직자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 청렴한 정읍시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